



금융투자협회장배 야구대회 개막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김포 고촌 제일구장에서 금융투자협회장배 야구대회 개막전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개막전에서는 대신증권, 신영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SK증권이 각각 아시아신탁, 현대차증권, 삼성선물, BNK투자증권, 금융투자협회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뒀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가운데)이 대표선수자인 KB증권 이상열 선수(왼쪽 첫번째), BNK투자증권 조혜린 선수와 포즈를 취했다. /금융투자협회



신세계푸드, 장애인 초청 베이킹 클래스 진행
신세계푸드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광진구 화양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초청 베이킹 클래스를 열고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신세계푸드 소속 제빵사와 임직원들은 지체 장애인 15명에게 '세사미 햄 치즈 샌드위치'와 '후두 치즈 베이글' 등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다. /신세계푸드



에스오일, 장애인 '감동의 마라톤' 행사 후원
에스오일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둔치 한강공원에서 '제 3회 감동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주 장애인 감동의 마라톤 선수 단장을 포함해 장애인과 동반주자, 비장애인 참가자 등 약 1600명이 하프(21km), 10km, 5km 단축 마라톤 코스를 달렸다. 사진은 우수 마라토너 시상식. /에스오일



에어부산 '대구 멘토링 축제' 참가
에어부산이 지난 20일 대구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대구 멘토링 페스티벌'에서 멘토링 교실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대구 멘토링 페스티벌'은 각 참가 기관이 부스를 설치, 생산적인 멘토링과 여러 가지 체험들을 제공하는 재능 기부 축제이다. /에어부산

중기부·소진공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

올해 11월에 있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 및 기능경진대회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한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

전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로 총 3개 부문이다. 모범소상공인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기술·매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단체 신청·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한국판 '에치고 츠마리'는 가능할까



홍경안 역
시사일각

1977년 이후 독일 북부의 작은 도시 뮌스터에서 10년마다 펼쳐지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는 삶과 근접한 미술의 살아 있는 역사로써, 예술이 일상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지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꼽힌다. 예술과 인간, 자연과 예술이 조화로운 미래의 공공미술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국제전이기도 하다. 2000년 시작된 '에치고 츠마리 트리엔날레'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의 일 본판이다. 때문에 '에치고 츠마리' 또한 그곳(장소,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 삶과 밀접한 미술언어를 창조하며, 삶 속에서의 예술실천을 중시한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와 감상자로서의 주민이라는 예술주체의 구분 없이 작가와 주민이 동등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주어진 자연과 환경을 무대로 사회적 문맥에 관여하는 작품을 생산한다는 게 특징이다. 일본은 유독 자연과 인간의 맥락에 주목하는 국제행사가 많은데, 1987년 시작된 '나오시마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이다. 나오시마 개발의 선구자인 후쿠타케 가문과 베네세그룹, 그리고 예술이라는 독창적인 콘텐츠와의 조화로

움으로 완성된 이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시작된 '아트하우스프로젝트'와 2010년 첫 삼을 쓴 '세토우치 국제아트페스티벌'과 함께 지금도 예술·자연·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술과 일상은 평등하게 양립해야 한다는 목적의 동일함이다. 미술의 민주적 공유와 공동체와의 미적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것 또한 공통분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벤치마킹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중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공동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를 비롯한 몇몇 국제행사들은 이세 현대 미술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으로 혹은 차용 가능한 새로운 미술 형식으로 바라본다. 흥미로운 건 넘치는 의욕과 달리 실제적 구현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도 포함한 고흥군, 하동군 등 여러 지자체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자신의 고장에 접목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저마다 천혜의 자연이라는 자산과 잠재력을 내세우지만 '제2의 무엇'은 요원하기만 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에게 '나오시마'처럼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기업 및 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에치고 츠마리'의 저력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정책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뮌스터'와는 달리 지자체장이 바뀌면 행사의 지속성은 불투명해지기 일쑤이며, 진두지휘할 예술감독이나 담당 공무원 임기 역시 1-2년을 넘지 못한다. 40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나, 약 20여년 동안 한결 같은 '에치고 츠마리', 30여년을 이어온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길고 긴 투자와 인내, 협업의 산물이지 조바심에 급조된 행사가 아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믿는 주민들과 열정적인 예술가들, 기관 및 기업의 협치와 상생으로 일군 공동체성의 결과물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한국판 '제2의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을 살리고 예술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신, 지역의 풍토와 역사성에 대한 통찰, 고유 자원에 관한 민·관·예의 충분한 학습 및 대화의 과정이 필수이다. 특히 예술을 통한 공공의 선 구축이라는 확고부동한 명제가 없다면 단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망상은 실패의 학습이고. /미술평론가

40세 중진공, 자축 대신 강원도 찾아 온정나눠

체육대회 등 축하행사 취소하고 산불피해 현장 방문해 주민 위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중진공은 지난 19일 이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강원 속초를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중진공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체육대회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축하행사를 계획했다 이를 취소하고 강원 산불 피해 주민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일정을 바꿨다. 성금은 애초 계획했던 축하행사 비용에 임직원 모금을 추가해 마련했다. 중진공은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5일에도 개인 위생용품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왼쪽)이 지난 19일 속초시청에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매해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 이사장과 임직원 80여명은 산불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이사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기

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진공은 성금으로 마련한 세탁기 32대를 속초시청에 전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사

-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실장 신형하 △시설본부 자산운영단 재산용지처장 박진현 △시설본부 시설장비사무소장 최종호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1차장 박석현 △수도권본부 시설관리처장 정한욱 △수도권본부 수도권사업단장 박찬완 △영남본부 동해북부사업단장 김태희 △강원본부 재산지원처장 김충기 △강원본부 시설관리처장 김찬식
- ◆ 고용노동부 △국장급 임용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성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강선희
- ◆ 환경부 △실장급 승진 전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나정균 △국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장 최홍원
- ◆ 문화일보 △논설위원실 △주필 이용식 △논

- 설위원 김병직 △ 편집국 △ 편집국장 박민 △ 편집국 차장 겸 경제산업부장 오승훈 △ 국제부장 김상현 △ 정치부장 유병권 △ 사회부장 이재교 △ 전국부장 김세동 △ 문화부장 최현미 △ 문화부 선임기자 정재선 △ 제작국 △ 제작국장 김부식 △ 운전1팀장 설창재 △ 광고국 △ 광고영업부장 이영학 △ 광고영업부 광고2팀장 권정협 △ 광고국장석 문성웅
- ◆ KBS △ 편성본부 아나운서실 아나운서1부장 이재후 △ 편성본부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장 윤인구
- ◆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미래전략팀장 이재선 △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김인경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두한 △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파견 안치국 △ 국무조정실 파견 노재욱

부음

- ▲ 차동세(전 KDI 원장·전 KIET 원장·전 LG경제연구원 원장)씨 별세, 제영숙씨 남편상, 차승은·차정은·차영란씨 부친상, 윤기호(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정지택(BAIN&COMPANY 코리아 대표)씨 장인상, 윤지원·윤준성·정재훈·정은지씨 조부상 = 20일 오후 10시41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2-3410-6915
- ▲ 김학성씨 별세, 김주선(경남제약 대표)·김주연·김주영(국가대표 리듬체조 감독)씨 부친상, 장혜원씨 시부상, 오태주(미국 미시간대 치의대 교수)·김한섭(㈜청주종합물류 영업팀장)씨 장인상, 김예세·김태호·김동현·김광현씨 조부상 = 21일 오전 8시57분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20분, ☎02-3010-2293